

지역 문화산업 기반으로서의 다양성영화 Diversity Film for Regional Cultural Industrial Base

김 나 윤, 김 상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Nayun Kim, Sangheon Kim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and Contents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다양성은 문화산업의 기반을 풍부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성영화는 비주류, 다문화, 소수, 마니아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성영화는 지역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괄할 수 있어서 문화적인 풍부함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된다. 이 글에서는 다양성영화가 문화산업의 기반 구조를 충실히 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고찰하였다.

1. 들어가는 말

지난 4월 경기도에서는 다양성영화전용관을 개관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다양성영화전용관을 운영·지원하여 다양성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관객들에게도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안적 배급 체제 형성을 통해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대 및 한국 영화산업의 기반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글에서는 영화산업 발전의 토대로써, 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으로써 다양성영화가 왜 고민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화산업과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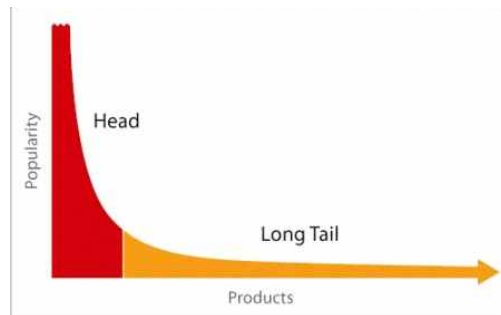
한국영화의 극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서고, 천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드물지 않게 등장하는 것은 분명 한국영화의 발전을 나타내는 징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스크린의 독과점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상존하고 있다. 극소수 대작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이에 따른 해법의 요구되며, 영화상영의 다양성과 관객의 영화선택권 확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어도 스크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

다양성이라는 단어는 비주류, 다문화, 마니아, 소수자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향유를 통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성영화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포함하며, 배급과 상영규모에 따른 작은 영화 또는 질적으로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중요시하는 영화, 비관습적인 서사와 미학적 가치를 지닌 영화, 복잡한 주제를 다루어 대중적 소통이 쉽지 않은 영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언급하는 영화 등으로 주류 상업영화의 제작 유통망을 통해 제작, 상영되지 않는 영화를 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3]

다양성영화는 산업적으로 비주류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영역을 롱테일의 법칙으로 분석할 때 수요가 집중되는 상위단계보다는 롱테일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산업적으로는 상영권이 수익을 추구한다고 볼 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물론 (워닝소리)와 같이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상업영화의 광역 상영 등에 의해 제대로 된 상영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그림 1. 롱테일의 시장규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테일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니아 그룹에 의해 유지되는 시장이다. 즉 다양성영화의 애호가들을 위한 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롱테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간이 흘러 상위 20%에 해당하는 헤드상품으로 발전하거나, 헤드 상품을 제작하는데 소재나 영감을 줄 수 있는 기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산업이 문화의 소양으로부터 확장 발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성영화는 소수자를 위한 보호가 아니라 문화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문화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유통배급구조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다양성영화와 지역성

다양성영화의 경우, 지역의 문화자원이나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소재로 제작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위낭소리>는 경북 봉화의 농부의 일상을 담은 영화이다. 소재로서 그다지 강한 자극을 줄 것도 없는 이야기를 2백만이 넘는 관객이 관람을 했으며, 촬영지는 방문객으로 북적이기도 했다. <지슬>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흥행에 남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흑백영화로서 빼어난 영상미와 해학미를 통해, 주민들과 토벌군간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보다 당시를 살아내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 주며 인간애를 다루는 데 무게를 두었다. 이런 이유로 <지슬>은 4·3 사건 속 원혼들을 달래는 씻김굿 같은 영화로도 불린다.[5] <지슬>은 제작비 2억5000만원이 투입된 작품으로 제주도 출신 감독이 제주 사람들과 함께 제주에서 찍은 지역 영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은 영화의 기획에서부터 개봉이후까지 영상으로 표현되어 영화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영화자원이라 함은 영화촬영이나 영화 속에 나타나는 내용 등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 하는 영화 관련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6] 영화촬영 로케이션의 대상지였던 곳은 영상을 통해서 기존의 의미를 증폭하고, 영화를 통해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여 새로운 상징이 부가된다. 드라마 촬영지를 통해서도 방문객들은 드라마에서 보였던 장면을 생각하며 주인공의 동선을 따라간다.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재매개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영화에서 공간을 매개하고, 공간이 다시 영화를 매개하여 이야기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채워진 이야기는 지역에서는 훌륭한 문화자원이 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자리매김한 영화도시이다. 영화도시의 이미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도시브랜드와 관광객을 위한 편의에 주력하고 있다. 한글과 영문판 소책자로 발행된 '영화관광가이드'는 부산 시네맵을 포함하여 부산시내 주요 촬영지와 영상관련 시설 및 행

사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의 관광정보와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자는 영상위원회와 관광 안내소 등에서 배포되고 있으며,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제공하는 앱 매거진인 "로케이션 D"도 주목할 만하다. 영상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인 로케이션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자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마켓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으며, 부산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진 뿐 만 아니라 동영상도 제공된다는 점은 영상을 통해 해당 지역의 풍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영화산업이 문화산업의 전반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다양성영화가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된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다양성영화는 문화적 다양성, 소재의 다양성, 형식의 다양성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다양성영화에 대한 주된 이슈는 배급의 문제였지만 다양성영화의 정체성을 고려해볼 때,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김영진, "한국영화, 이제 생존보다 다양성을 말할 때", 문화예술, 2004. 4.
- [2] 변재란, "문화다양성, 영화다양성 그리고 다양성영화", 영상예술, 9호, 2006.
- [3] 김종국, "다양성영화 지원제도의 법제화 방안", 다양성영화 활성화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2009.
- [4] 임이숙, "한국 영화산업의 장르 다양성에 관한 문화생산론적 연구", 문화와 사회, 제7권, 2009.
- [5] www.nocutnews.co.kr, "4·3 원혼 달래는 영화 '지슬' 관객 10만 넘어". CBS 노컷뉴스(2013년 4월 14일).
- [6] 우석봉 외, 영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창의연구, 2011-12-390, 부산발전연구원, 2011.